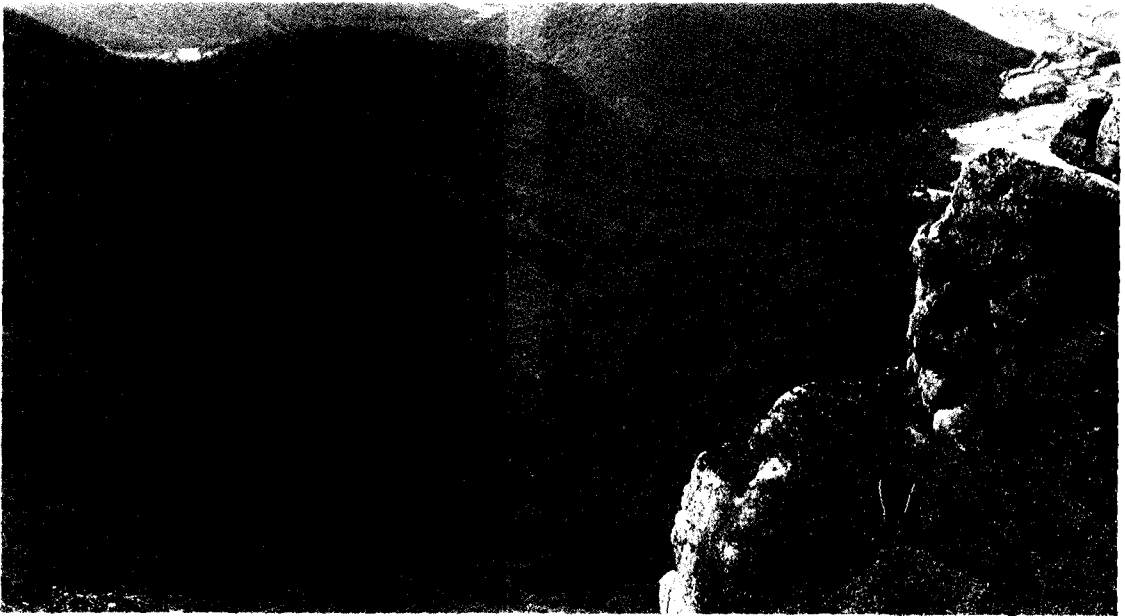




이 천 용 / 임업연구원
산림보전과

환경을 지키는 숲— 보안림 Ⅱ



▲(사진1) 금산에서 바라본 남해. 94. 6.

나. 풍치림

(1) 산림풍치의 중요성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도시근교에서 풍치와 관련된 휴양림이나 놀이 문화의 증가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자원과 녹색 자원의 확보가

최근 도시 행정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자연에서의 즐기는 여가 활동도 양과 함께 질을 요구한다. 산림이나 녹색에 대해서도 단순히 나무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끝나고 보다 바람직한 풍경을 요구하는 「질의 시대」에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잣나무나 낙엽송을 50년 후에 단지 경제적인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국민 정서의 현실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림은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발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풍치를 특별히 배려한 산

림은 경관을 이용하는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일부러 여행을 떠나서 찾아 가서 보는 가치 있는 곳이므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여가 시간의 증가와 경제적 여유로 인하여 계속 국립공원 등의 산림 풍치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곳은 더욱 풍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일상 지역 주위의 산림 풍치는 반드시 훌륭하고 보기좋은 것만은 아닌, 오히려 평범한 풍경으로서 전부터 주의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 바라보게 되면 애착이 생기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경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풍경이며 지역의 동일성을 형성해 온 환경의 기본 요소인 것이다.

풍치는 정취와 전망이 함께 있다. 풍치는 눈에서 얻는 정보, 즉 바라보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 눈은 먼 곳에 있는 산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코나 입이나 피부는 비교적 가까운 산림 밖에 느낄 수 없다. 풍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상」과 보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대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므로 “풍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풍치는 보이는 대상과 인간이 보고 있는 시점(視點)의 관계이므로 대상인 산림만으로 성립될 수 없고

▶ 경주 불국사의 소나무숲.



◀ 지리산 천은사 입구의 풍치 보인림. 94. 6.

시점과의 상대적 위치 관계에서 성립한다.

풍치가 인간(시점)과 산림과의 관계라면 대상인 산림 자체를 보기 좋게 해야 풍치 이용 효과가 높아진다. 보다 훌륭한 전망을 위하여 시점의 선정과 시점 주위의 정비도 대상의 위치 변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히려 전망 대상이 넓은 산림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시점을 이동하는 편이 더 간편하다. 또한 산림은 일반적으로 경관 전체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조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 산림 경관의 특징

산림은 사계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넓은잎나무가

대부분인 곳은 초봄의 신록(新綠), 봄·여름의 개화(開花), 가을 단풍과 낙엽이 지면서 계절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

산림은 임목(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관)의 집단이며 수관은 잎의 집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 산림 경관에서는 거리에 따라 풍치가 달라지고, 질감(texture)이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등 3가지 특징이 있다.

(가) 거리

건물, 도로나 인공 구조물은 거리에 의해 크기는 변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데 비하여 산림 경관은 거리에 따라 표정이 변하는데 이것이 산림의 독특한 특징이다. 산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으면 잎 하나하나의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가지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 더욱 멀리서 보면 수관이 한 집단이 되고 그 이상 멀어지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는 의식되지 않으며 더 멀어지면 산림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림 경관의 설계와 조성에는 시점의 위치가 중요하다. 경관의 대상이 가지, 한 본 한 본의 수관의 미묘한 차, 집단으로써의 산림 등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계획해야 한다.

(나) 질감

콘크리트나 철로 만든 인공 구조물은 질감이 없고 무표정하므로 표면을 처리하여 질감을 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질감은 표정을 만들고 친근감이나 맛을 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림은 아주 복잡한 질감을 갖고 있다. 산림은 수목의 집합체이지만 형태나 크기가 특장하지 않다. 고정적인 형태가 없다는 뜻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나 동시에 상상 능력이 낮다는 것이 된다.

(다) 형태 및 조화

경관은 디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통일된 디자인이 보기에 좋지만 산림은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숲 가장자리를 잘 처리해야 경관미가 향상된다.

산림경관은 그 안에 건물이나 도로 등 존재감이 강한 물체가 있으면 경관을 해치기 쉽다. 그러나

천연림 속에 잘 건축된 산막은 그 존재가 오히려 경관을 돋보이게 하기도 한다. 반면에 산림을 벌채한 곳은 눈에 쉽게 띄며 산림지와 의 경계 부위는 디자인상 배려가 없기 때문에 보기도 나쁘고 산림 경관의 질을 저하시킨다.

산림은 건축물, 토목 구조물 등에 비하여 강한 느낌보다는 현실의 풍경 속에서 조용히 바라다 보이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관은 산림만을 특별히 조망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이나 도로 등과



▲ 안면도 휴양림. 33 5

같이 개성이 강한 것과 함께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 결과 산림은 풍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써 작용하게 된다. 산림 경관의 특징은 자신을 보여주는 효과 외에도 다른 풍경요소와 훌륭한 조화를 이루므로 효과적인 위치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3) 바람직한 풍치립 조성 방법

(가) 산림 이외의 요소와의 조화

산림의 풍치 보전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산림 자체의 관리 상태, 산림이 아닌 요소와의 조화 그리고 바라보는 장소(視點)의 선택과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전적이며 유명한 산림 풍치는 봄의 벚꽃이나 가을 단풍 자체도 좋지만 주위에 있는 하천의 여러 가지 상황 즉 강폭, 냇물의 양과 유속 등이 산림경관과 잘 조화되고, 단풍나무가 식재된 독이 있거나 고수 부지에 꽃 등이 있다면 풍치가 더 향상되며 또한 숲 속에 절이 있고 종소리를 낼 때 산림경관에 더욱 부드러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산림이 풍치의 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와 잘 조화되어 있어야 더욱 좋다. 자연 요소인 하천과 산림, 즉 물과 녹색이 풍치의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여러가지 자연이나 인공물이 첨가됨으로써 훌륭한 산림 경관을 이루게 된다.

훌륭한 산림 경관 조성은 잠재력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에서 주대상을 볼 때 효과적인 위치에 건축물이나 계절을 잘 표현하는 자연 요소를 배치해야 한다.

(나) 시점의 위치

산림을 바라보는 데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임목은 시점에서의 거리(視距離)에 따라 보이는 형상이 변하여 가까이에서는 잎과 가지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약간 떨어져지게 되면 한 장의 잎보다도 잎의 집합인 수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더욱 멀어지면 수관(樹冠)의

집합이 보인다. 그러므로 나무의 세부적인 것을 보는 한계는 400m 정도이고 수관이 보이지 않게 되고 녹색의 바탕으로 보이는 것은 약 3km 이상이다. 거리 5~15km는 산의 연결된 능선만 보이지만 0.5~2km에서는 단풍이나 신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무가 아니라 산림을 보려면 중간 정도가 좋다. 산림은 조각처럼 한참동안 바라보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거리는 기본이다.

산림을 보는 위치와 거리외에도 쳐다보는 것과 내려다 보는 것은 경관이 다르다. 쳐다보면 산허리와 능선이 보이고 나무의 옆면을 보게 되며 단풍과 신록에 음영(陰影)이 있어 미묘한 산림의 변화를 느낀다. 내려다 보는 경관 중 으뜸인 것은 수해(樹海)이다. 「수해」(사진 1)는 매력있는 산림 풍경의 한 가지인데 이것은 산림이 바다처럼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커다란 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다처럼 보이기 위한 시점의 조건은 거리와 시점의 상대적 높이이며 내려다보는 관계가 아니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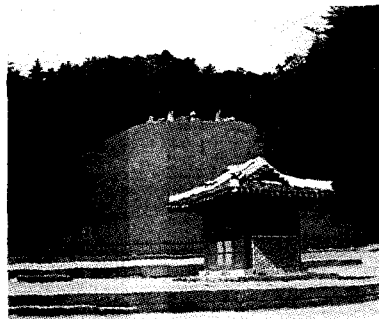
수해에서는 규모가 중요하므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특징이 문제가 아니라 수관이 어떤 질감을 가질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내려다보는 경관이 개방적인데 비해서 올려다보는

경관에서는 대상에 위압감을 느낀다. 이처럼 시점과 대상의 수직적 위치 관계는 거리와 마찬가지로 산림 풍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다) 풍치림 시업방법

지금까지 풍치림 시업의 문제점은 간벌 방법의 부적절, 산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가지치기로 인한 수형(樹型)의 변화와 소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목의 식재이다. “나무를 심으면 풍치는 저절로 좋아지고 아름다



▲ 광릉과 주위산림

운 나무를 심으면 풍치는 향상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은 풍치림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성이 너무 높은 느낌을 주거나 너무 낮은 느낌을 주는 산림보다 적당히 자연스러운 산림을 좋아한다. 따라서 인공림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하므로 자연스러움을 높이려면 통일성을 깨뜨리는 넓은잎나무를 도입하거나 수관의 크기나 배열을 바꾼다든가 하여 풍치감을 높인다. 국립공원 등 일상생활지역이 아닌 곳의 대면적 인공림과 그

주변이, 천연림이나 이차림인 산림에서는 자연스러운 연출에 의해 산림 풍치를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상 생활 지역에서는 본래 목재 생산 지역이라 하더라도 군데군데 넓은잎나무를 섞어서 풍치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풍치림 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베기의 금지이다. 한 그루도 남기지 않은 벌채 방법은 벌채직후 적지(跡地)가 너무 넓어 눈에 띄고, 그 후 산림 풍치는 단조롭게 되며, 거대한 나무가 되지 않는 등의 풍치상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베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아름답리 나무가 울창한 산림은 어린이들에게 약간 무섭지만 들어가 보고 싶은 신비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서 자연을 경외하는 환경 교육의 장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나무들이 한쪽의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고, 변화가 있으려면 커다란 나무를 최소한 헥타아르당 한 두 본을 남기고 베어야 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풍치림 시업은 과거 인공림 위주의 시업과 벌채를 싫어하는 국민 정서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산림풍치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경관 향상을 목표로 일상생활 지역의 산림부터 적극적인 풍치 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산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요청된다.

(계속)